

한 폭의 예술
공간에서 말을
걸어오는 낭만의
주체로: 1910-
1930년대 딱지본
표지 디자인
From a
Singular Art
Space to
a Voice of
Romance: The
Cover Designs
of *Ttakjibon*
from the 1910s
to the 1930s

권수민
Kwon Soomin

홍익대학교 시각디자인전공
BFA Program, Visual Communication Design,
Hongik University

- 서론
- 1910년대 딱지본 표지 디자인
 - 딱지본의 등장과 대중 독자층의 확대
 - '시선을 이끄는 한 폭의 예술 공간'으로서 표지 디자인
 - 전통 산수화 형식을 반영
 - 장르와 내용에 따른 군담소설
- 1920-30년대 딱지본 표지 디자인
 - '독자에게 말을 걸어오는 낭만적 주체'로서 표지 디자인
 - 여성 주인공 중심의 표지디자인 경향
 - 연애의 시대를 드러내는 이미지
 - 관음적 대상으로 소비되는 여성 이미지
 - 복장으로 드러나는 여성상
 - 신매체의 등장을 반영하는 표지 디자인
- 결론

지도교수: 박지나
Supervisor: Park Jina

1. 서론

딱지본 소설책은 1910년대부터 한국에서 본격적인 근대 출판이 시작되며 등장했다.¹⁾ 딱지본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출판에 책 표지라는 개념을 들여왔다는 점이다.²⁾ 딱지본 소설책의 표지 디자인은 독자를 책 속 이야기로 유도하며, 당대의 생활상과 대중 독자들의 모습을 함께 보여준다.

이 연구는 딱지본 표지 디자인을 주목하며, 1910-1930년대 근대 딱지본의 시대별 경향을 살펴보고, 표지 디자인이 당대의 대중 독자들을 책으로 유도했던 방식을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 범위는 1910-1930년대에 나타난 딱지본의 표지 디자인이다. 참고한 선행연구는 김수현·정창현(2011), 『제국의 억압과 저항의 사회사』, 오영식·유춘동(2018), 『오래된 근대, 딱지본의 책그림』, 유춘동·엄태웅(2018), 『신문관의 육전소설』, 서유리(2009), 「딱지본 소설책의 표지 디자인 연구」, 조현신(2018) 「딱지본 신소설의 시각성: 1920년대 딱지본 신소설의 표지 디자인을 중심으로」, 최태화(2018), 「게사쿠와 한국 딱지본 대중소설의 표지 및 삽화 비교」이다. 연구 방법은 문헌연구와 사례분석으로, 시대별 딱지본 표지 디자인의 의미에 집중해 대중을 대상으로 한 이미지로서의 딱지본 표현 방식을 분석하고, 시각 표현 방식과 변화 방향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서 당시 대중의 특성과 딱지본 표지 디자인의 관계를 추론할 수 있을 것이다.

- 1) 최태화, 「게사쿠와 한국 딱지본대중소설의 표지 및 삽화 비교」, 『일본문화학보』, 제76호, (한국일본문화학회, 2018), p.278
- 2) 서유리, 「딱지본 소설책의 표지 디자인 연구」, 『한국근현대미술사학』, 제20집, (한국근현대미술사학회, 2009), p.53

Introduction

The emergence of *Ttakjibon* novels in Korea in the 1910s marked the beginning of modern publishing in the country. An interesting feature of *Ttakjibon* novels is their pioneering use of book covers in the publishing industry. The cover designs of these novels serve as visual representations of the lifestyle and popular trends of the time and act as a guide for readers.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cover design trends of *Ttakjibon* novels from the 1910s to the 1930s and explore how these designs influenced readers. The research references previous studies such as Kim Suhyun and Jeong Changhyeon's "Social History of Imperial Oppression and Resistance" (2011), Oh Youngsik and Yoo Chundong's "Old Modern Times, *Ttakjibon*'s Book Illustration" (2018), Yoo Chundong and Eom Taewoong's "Yukjeon Novel in the Newspaper" (2018), Seo Yuri's "A Study on the cover design of *Ttakjibon* novels" (2009), Jo Hyunshin's "Visuality of *Ttakjibon* New Novels: Focusing on the cover design of *Ttakjibon* New Novels in the 1920s" (2018), and Choi Taehwa's "Comparison of covers and illustrations of Gesaku and Korean popular novels"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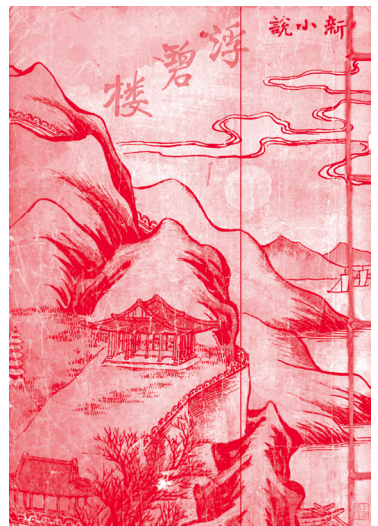
The study utilizes literature research and case analysis as its research methods. It focuses on examining the significance of *Ttakjibon* cover designs in each era, analyzing how *Ttakjibon* was depicted as an image for the public, understand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public during that period, exploring changes in visual expression methods, and uncovering the connection between the cover design of *Ttakjibon* novels and the readership.



[그림 1] 『화세계』, 1911, 동양서원



[그림 2] 『쌍옥직』, 1911, 현공림가



[그림 3] 『부벽루』, 1914, 보급서관

2. 1910년대 딱지본 표지 디자인

2.1. 딱지본의 등장과 대중 독자층의 확대

1900년대에 접어들어 한국은 석판 및 활판인쇄 시대에 진입한다. 책이 귀하고 비쌌던 이전과 달리, 대량 출판에 효율적인 활판인쇄를 통해 책의 가격이 내려간다. 이렇게 한국의 근대 출판이 시작되며, 대중이 새로운 독자층으로 편입된다.³⁾ 이 시기 등장한 딱지본은 1900년대 초에 신식 연활자와 채색 인쇄 기술을 바탕으로 값이 싸고 부피가 작아 서민들이 간편하게 휴대할 수 있었던 대중소설이다. ‘이야기 책’인 딱지본은 대중소설로 인기가 있었지만, 한동안 수준 낮은 책으로 저평가 받아왔다. 김기진의 ‘소위 ‘이야기책’이라는 『옥루몽』, 『춘향전』, 『조웅전』, 『유충렬전』, 『심청전』 같은 것은 연연히 수 만권씩 출간되고 이것들 외에도 『추월색』이니 『강상루』니 『재봉춘』이니 하는 이십 전, 삼십 전 하는 소설책이 십여 판씩 중판을 거듭하여 오되 이것들은 모두 통속소설의 권내에도 참석하지 못하여 왔다. 이것들 울긋불긋한 표지에

3) 최태화, 같은 논문, p.278

사호활자로 인쇄한 백 쪽 내외의 소설은 ‘고담책(古談冊)’, ‘이야기책’의 대명사를 받아가지고 문학의 권외에 멀리 쫓겨온 것이 사실⁴⁾이라는 설명에서 알 수 있듯이 딱지본은 상업적 성격이 강하다는 점과 함께 대중의 취향을 위한 것이라는 시선을 받아 수준 낮은 출판물로 평가되기도 했다.⁵⁾

2.2. ‘시선을 이끄는 한 폭의 예술 공간’으로서 표지 디자인

하지만 상업 측면에서 책 표지는 대중의 눈에 띄어야 했다.⁶⁾ 대중의 인기를 염두하고 제작된 딱지본으로부터 시선을 끄는 표지 디자인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한국의 근대 책 표지 디자인이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1910년대까지의 딱지본 표지 디자인의 특징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시선을 이끄는 한 폭의 예술 공간’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림 1]의 『화세계』처럼 독자들은 이야기의 공간을 구체적으로

4) 김기진, 「대중소설론」, 《동아일보》, 1929.4.14. p.3

5) 서유리, 같은 논문, p.53

6) 최태화, 같은 논문, p.278



[그림 4] 『진장군전』, 1916, 대창서원



[그림 5] 『진장군전』, 1916, 대창서원



[그림 6] 『진장군전』, 1916, 대창서원

재현해 둔 표지를 통해 소설로 유도된다. 이 시기 딱지본 표지 디자인을 크게 '전통 산수화의 형식', '장르와 내용에 따른 군담소설'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2.2.1. 전통 산수화 형식을 반영한 표지 디자인

1910년대 딱지본 표지 디자인의 가장 큰 특징은 조선시대 전통적 산수화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점이다. 형식적으로는 부감법, 먹선의 농담, 준법, 수지법 등의 전통 서화 기법을 보이며 '신선, 선녀, 원앙' 등 전통적 모티프 등을 주로 활용했다. 또한, 전통적인 이야기 장면을 담아내 내려다보는 부감 형식의 배치를 통해서 등장인물과 소설 속 사건의 한 장면을 담아내었다.

이야기가 펼쳐지는 공간을 회화적으로 그려낸 표지를 통해 독자들은 마치 소설 속으로 들어가는 듯한 경험을 하게 된다. 또한, 전통 산수화의 형식으로 화가 그림과는 거리가 멀었던 대중에게도 회화의 감각을 저렴하게 소유할 수 있도록 해 주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

2.2.2. 장르와 내용에 따른 군담소설의 표지 디자인

이어서 딱지본 표지 디자인의 이미지를 장르와 내용에 따라 살펴보고자 한다. 군담소설은 비범한 주인공이 시련을 극복하고 성장하여 전쟁에 참여하고, 끝에는 고난을 거쳐 나라를 구하고 출세하게 된다는 흐름을 기반으로 이야기가 구성된다. 이러한 군담소설의 표지에는 산세나 성곽을 배경으로 주인공이 적을 물리치는 장면이 묘사되는 경우가 가장 많다.⁷⁾ 군담소설에서 독자들이 가장 기대하는 장면은 주인공의 영웅적 활약이 펼쳐지는 장면일 것이다. 이를 염두에 두고 책의 핵심 장면을 표지 디자인으로 그려내, 독자의 기대를 충족시킴과 동시에 한눈에 장르를 드러낸다. 이는 독자를 소설로 유도함과 동시에 결정적 장면이 등장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소설을 놓지 않고 읽어 내려갈 동기를 독자에게 부여한다.

당대의 딱지본 표지 디자인은 [그림 4]의 『진장군전』과 같이 이야기 공간을 전체적으로 조망하는 구조를 활용하며, 주인공을 포함한 인물들은 작은 크기로

7) 서유리, 같은 논문, p.63



[그림 7] 『화세계』, 1911, 동양서원



[그림 8] 『쌍옥적』, 1911, 현공령가



[그림 9] 『부벽루』, 1914, 보급서관

묘사되어 공간을 이루는 한 요소로 그려짐을 확인할 수 있다.

3. 1920-30년대 딱지본 표지 디자인

3.1. '독자에게 말을 걸어오는 낭만적 주체'로서 표지 디자인

1910년대까지의 표지 디자인에서는 이야기의 배경 혹은 결정적 사건이 삽화적으로 그려지고, 등장인물은 그 장면의 한 요소로서 비교적 중요도가 낮게 그려졌다. 그러나 1920-30년대 이후 딱지본 표지 디자인의 특징은 '독자에게 말을 걸어오는, 살아 숨 쉬는 낭만의 주체'로서, 인물이 강조되는 형식으로 변화하는 것이 큰 특징이다. 독자가 문을 열고 들어와 주기를 기다리며 존재하던 이야기 공간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독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스스로 생동감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이 주체는 표정, 동작 등 다양한 단서로 대중 독자들에게 직접 말을 건다. 물리적 거리를 좁혀 주인공과 독자가 심적으로도 가까워지고, 혹은 독자 자신을 주인공과 동일시하도록 유도하여 이야기에 더욱 몰입하도록 유도한다. 이를 통해

이야기의 장면과 상황을 넘어 주인공들의 감정, 심리, 마음을 느낄 수 있도록 한다.

예시로 1920년대 이후 표지 디자인의 변화는 『추월색』을 통해 잘 알아볼 수 있다. 이야기가 펼쳐지는 배경을 중심으로 그렸던 1910년대 표지 디자인과 달리, 1930년대의 표지 디자인에서는 등장인물 중심의 구성으로 변화했다.

3.2. 여성 주인공 중심의 표지 디자인 경향

일제강점기인 1920년대엔 계몽주의, 자주독립 주제의 출판물들이 금지당하며 여성을 주인공으로 한 소설이 주류로 떠오른다. 따라서 여성 주인공이 표지 디자인에 등장하는 사례가 많아지는데, 이는 새롭게 교육을 받은 도시 여학생을 포함해 신여성을 겨냥한 소설의 출판이 늘어났기 때문이다.⁸⁾ 표지 디자인 전면에 등장하는 여성 주인공은 책 속 이야기 또한 여성 중심으로 전개될 것을 드러내며, 여성 독자를 이야기로 이끄는 데에 일조한다.

3.2.1. 연애의 시대를 드러내는 이미지

1920년대는 '연애의 시대'였다. 여성

8) 서유리, 같은 논문, p.69



[그림 10] 『진장군전』, 1916, 대창서원



[그림 11] 『진장군전』, 1916, 대창서원



[그림 12] 『진장군전』, 1916, 대창서원

주인공들은 애타는 사랑, 만남과 이별의 슬픔 등 낭만적인 상황의 주체가 되고, 딱지본 표지 디자인에서도 중심에 배치된다.⁹⁾ 이전에는 표지 디자인에 이야기의 공간, 혹은 핵심 장면의 맥락을 전체적으로 그려내어 독자를 유도하였다면, [그림 9], [그림 10]과 같이 낭만적인 순간, 혹은 감정적 교류가 드러나는 순간을 포착한다. 표지 디자인과 마주친 독자는 주인공에 자신을 대입하고, 표지에 그려진 상황을 상상하며 이야기 속으로 유도된다. 이렇듯 표지 디자인에 그려지는 여성 주인공은 단순 등장인물의 모습을 넘어 여성 독자를 이야기로 들여와 살아 숨 쉬게 해 줄 주체의 시각화로 기능하기도 했다.

3.2.2. 관음적 대상으로 소비되는 여성 이미지

여성을 이야기의 중심으로 활용하는 동시에, 잡지, 영화와 같은 신매체의 도입이 본격화되며 여성을 관음적 대상으로 여기는 경향도 강해졌다. 여성 주인공들은 빈번하게 목숨을 위협받거나 극적인 상황에 놓임에도, 딱지본 표지 디자인에서는

소극적인 포즈를 취하거나 가려진 모습으로 묘사되어 여성이 그저 이미지로서 소비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한다.

3.2.3. 복장으로 드러나는 여성상

딱지본 표지에서는 거의 모든 여성 주인공이 한복을 입고 등장하며, 반대로 남성은 대부분 양복을 입고 등장한다는 점도 눈여겨볼 만하다. [그림 13], [그림 14]와 같이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눈을 맞추며 대화를 나누고 있음에도, 머리 스타일과 복장을 서구적으로 갖춘 남성은 근대적으로 보이며 조선의 전통성을 띠고 있는 여성은 구시대적으로 보이게 된다.

이렇듯 딱지본의 표지 디자인은 당대의 모습과 가치관을 반영한다. 이를 접하는 대중 독자들은 딱지본 표지가 그려내는 인물에 이입하여 당대 관념을 학습하고 재생산하며 일정 부분 공유된 여성관, 남성관을 가졌을 것임을 추론할 수 있다.

3.2.4. 신매체의 등장을 반영하는 표지 디자인

신매체인 영화와 잡지 등이 등장하면서, 딱지본 표지 디자인에도 여성지 표지와

9) 서유리, 같은 논문, p.69



[그림 13] 『화세계』, 1911, 동양서원



[그림 14] 『쌍옥적』, 1911, 현공림가



[그림 15] 『부벽루』, 1914, 보급서관

유사하게 클로즈업한 여성과 전신 포즈를 활용하는 방식이 나타난다.¹⁰⁾ 이러한 표현 방식은 소비하는 주체가 되었던 여성들에게 당대 유행이 반영된 대중의 모습과 선호를 보여주었다. 실제로 1923년 최초의 무성영화 상영 이후 1925년 경성에서는 12개의 극장이 운영되었으며 영화 상영이 대중화되었다. 1926년에는 『신여성』, 『별건곤』 등의 잡지가 출간되었고, 1921년부터 각종 백화점과 다방, 카페, 양복점과 같은 잡화점 등의 새로운 소비공간이 급속도로 증가했다. 1930년대에는 레코드와 유성기의 보급이 확산되기도 했다.

이러한 당대의 모습이 딱지본 표지 디자인에 드러나고, 그려지는 인물 또한 유행을 반영한다. [그림 17] 『춘몽』과 그 이후 출간된 [그림 18] 『춘몽의 꿈』을 살펴보면 주인공이 동일한 모습으로 묘사되지만, 여성의 복장이 달라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변화하는 딱지본 표지의 등장인물은 마치 주변에서 살아 숨 쉬는

10) 조현신, (2018), 「딱지본 신소설의 시각성: 1920년대 딱지본 신소설의 표지 디자인을 중심으로」, 『근대서지』 제18호, (근대서지학회, 2018), p.529

존재인 듯, 대중 독자에게 말을 거는 주체로서 더욱 생명력과 설득력을 갖는다.

4. 결론

지금까지 1910-1930년대에 나타난 근대 딱지본 소설의 경향을 중심으로, 표지 디자인의 시각적 특성을 살펴봄여 시대별 표지 디자인이 당대의 대중 독자들을 소설책으로 유도했던 방식을 분석했다. 먼저 1910년대의 딱지본 표지디자인은 '시선을 이끄는 한 폭의 예술 공간'이었다. 이야기가 전개되는 공간을 구체적으로 재현해 줌으로써, 독자들이 소설 공간으로 유도될 수 있도록 했다. 이때 대부분의 표지는 주인공을 전체 공간을 구성하는 하나의 요소로써 사용함을 알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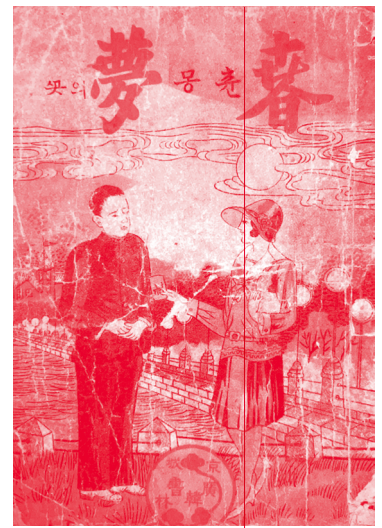
그러나 1920-30년대의 딱지본 표지디자인은 '독자에게 말을 걸어오는 주체'로, 특히 인물을 강조하는 표지 형식을 중심으로 변화했다. 그 이유는 도시의 여성 독자층을 의식하여 여성 주인공 중심의 표지디자인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애정소설과 신여성의 등장은 여성 주인공에 독자를 동일시하는 측면을 보였으며, 이 과정에서 관음적 이미지,



[그림 16] 『진장군전』, 1916, 대창서원



[그림 17] 『진장군전』, 1916, 대창서원



[그림 18] 『진장군전』, 1916, 대창서원

대상으로 그려지는 여성을 보았고 복장에서 드러나는 여성상을 보여 주었다. 또한, 신매체의 등장에 발맞춰 딱지본 표지 디자인 속 인물이 당대의 유행을 반영함을 확인했다.

20세기 초 등장한 딱지본은 대량 출판, 근대 활판인쇄로 대중 독자들과 가장 가까워서 친밀하게 소통했던 매체이다. 따라서 딱지본의 정보전달의 표지 디자인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당대 대중 독자들의 성향, 생활 모습, 시대 경향까지도 담아내는 중요한 사료가 된다. 특히 1920년대 이후의 딱지본은 그것이 전면에서 드러내는 다양한 장면과 표정이 마치 감정적으로 호소하는 듯, 독자에게 거리를 좁혀 적극적으로 다가간다. 이렇듯 딱지본의 표지 디자인은 당대의 모습을 보여주는 학술적 가치를 가지면서도, 상품이 되는 책의 표지로서 독자를 유도하는 핵심 기능도 충실히 수행했다. 그러한 이유로 딱지본의 표지 디자인은 ‘독자에게 말을 걸어오는, 살아 숨 쉬는 낭만의 주체’라고 칭할 수 있을 것이다. 46

참고문헌

- 김수현·정창현, (2011), 『제국의 억압과 저항의 사회사』, 민속원
- 오영식·유춘동, (2018), 『오래된 근대, 딱지본의 책그림』, 소명출판
- 유춘동·엄태웅, (2018), 『신문관의 육전소설』, 소명출판
- 서유리, (2009), 『딱지본 소설책의 표지 디자인 연구』, 『한국근현대미술사학』 제20집, 한국근현대미술사학회
- 조현신, (2018), 『딱지본 신소설의 시각성: 1920년대 딱지본 신소설의 표지 디자인을 중심으로』, 『근대서지』 제18호, 근대서지학회
- 최태화, (2018), 『게사쿠와 한국 딱지본 대중소설의 표지 및 삽화 비교』, 『일본문화학보』 한국일본문화학회